

<퀴어락>

기획: 이강승, 권진

2019년 10월 6일 - 11월 2일

Venue:

합정지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40

화-일 13:00-20:00

오프닝 리셉션:

10월 6일 일요일 16:00-19:00



사진가 미상, 1970년대, 서울, 한국

참여작가

최하늘, 이경민, 문상훈 & 아장맨, 루인, 김세형(AJO)

《퀴어락》전은 서울에 기반을 둔 작가들이 퀴어락(한국 퀴어 아카이브)에서 수개월 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신작으로 이루어진 전시이다. 이 전시는 한국의 퀴어들이 역사에서 삭제되는 결과를 낳았던 담론적, 학술적 폭력에 저항함으로써, 편향된 한국(미술)사의 규범과 학술 제도가 설파해 온 좁은 관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퀴어락》의 작가들은 이삼십대 한국 퀴어 작가의 새로운 세대이다. 그들은 퀴어 공동체의 행동주의 유산에 헌정하는 역사를 (다시) 쓰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이 전시를 통해 정치와 역사의 심층적인 변화를 다루는 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전시 작품은 한국에서 제작되고 수집된 퀴어 출간물, 자료, 영상물, 글과 그림 등 퀴어락의 소장 자료를 연구 조사하는 데에서 출발하며, 그래픽 디자인, 조각, 설치, 영상, 패션 등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독창적인 타임라인을 그려낸다. 아카이브를 재조명하고 재상상함으로써, 전시는 한국 퀴어사의 계보에 주목하는 중요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

2002년에 설립된 퀴어락은 활동가이자 한국의 퀴어 전문 잡지《버디》(1998-2003)의 편집장이었던 한채윤의 개인 아카이브와 잡지《버디》의 기증품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소장품은 그의 개인적 아카이브뿐 아니라 2006년 서울퀴어퍼포먼스페스티벌에서 기증한 700편이 넘는 영상 자료 등 수천 점의 서적, 박물관을 포함한다. 단체전의 일환으로 퀴어락은 아카이브의 일부를 합정지구의 원도 공간으로 옮겨와 일반 관객이 수월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퀴어락》은 뉴욕 apexart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시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apexart.org/exhibitions/lee-kwon.php

이강승 / 로스앤젤레스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칼라츠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CCF Fellowship for Visual Artists (2019), Rema Hort Mann Foundation grant (2018), and Artpace San Antonio International Artist-in-Residence program (2017) 등을 수상하였다.

권진 / 영국에서 고고학과 미술가, 디지털 문화사를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예술문화위원회 아르코미술관에서 전시 기획을 배우고 시작했다. 4회 안양공공프로젝트 전시를 맡았고, 현재 서울 시립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재직중이다.

apexart's program supporters past and present include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The Buhl Foundation, Bloomberg Philanthropies, The Greenwich Collection Ltd., William Talbott Hillman Foundation/Affirmation Arts Fund, the Milton and Sally Avery Arts Foundation, the Fifth Floor Foundation, the Consulate General of Israel in New York, the Kenneth A. Cowin Foundation, the Trust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public funds from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in partnership with the City Council and the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with the support of Governor Andrew M. Cuomo and the New York State Legislature.